

“남해안철도 통로박스, 조망권 침해”

보성 두슬마을 주민들 ‘교각 설치’ 주장
내일 관계부처·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촉박

남해안철도 보성-목포 임성리 간 제1공구 내 보성군 보성읍 두슬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 앞을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 토성을 쌓아 마을을 고립시킨다며 기존 공법보다 교각을 설치해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법으로 공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상복을 입은 채 투쟁에 들어간 두슬마을 주민들은 아무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의 생활 형태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인 공사가 실시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를 저지하고 나섰다.

6일 두슬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마을 입구에 토성을 쌓아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 박스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토성을 쌓을 경우 마을의 조망권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65가구 150여명이 살고 있는 두슬마을은 대부분이 노인이다. 마을을 대표한 이장이 나서 상복을 입고 단식에 돌입하며 각계각층에 최소한 주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마을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교각으로 설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박옥근 이장은 “계획대로 마을 앞 전체를 흙담을 쌓고 비좁은 통로박스로는 마을 전체 통풍에도 영향을 미쳐 농사에도 지장이 있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처럼 거

대한 철도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없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두슬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사정을 군청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부처에 알렸고 오는 8일 간담회가 준비된 만큼 지켜 보겠다”며 “주민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땐 전국에 있는 자녀들을 부르고 출향인과 힘을 합쳐 공사 중지 요구 등 투쟁 강도를 높여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7월 초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당국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두슬마을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실시했고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서명 동의서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해안철도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은 총 1조3,795억원의 사업비로 82.5km의 공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보성군 보성읍 두슬마을 박옥근 이장이 남해안철도 공사가 마을의 조망권을 해치고 있다며 공사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순천시장, 희생양 작전이 아니길...

기지수첩



권동현 차장
동부취재본부

“그래서 곧바로 희생양 작전을 이야기했다. 잘못됐을 떠나 이번 위기를 돌파하려면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 그리고 희생양으로 비서실장을 지명했다”

허석 순천시장이 쓴 ‘수오지심’이라는 자서전 성격의 책에서 민선 1기 방성용 순천시장이 돈 봉투 사건으로 자문을 구하자 허석 시장이 당시 조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서실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돌파하지는 해마다.

지난 7월 23일 허석 시장은 ‘순천 시민의신문’을 운영하며 1억6,300만 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일했던 A 편집국장도 총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순천시는 시장 기소 당일 비서실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하고, 허석 시장은 논술학원을 하며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라며 허석 시장은 이 사건에서 빠진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허 시장을 고발한 B씨는 다음 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며칠 뒤 B씨를 고소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묘하게 A 편집국장이 전면으로 등장하며 B씨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바뀌어 가는 흐름이다. 허석 시장은 슬그머니 빠진 채.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허석 시장은 “시장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드인사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 직원 인사를 추첨으로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7월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에 떠밀려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논란이 관계법령 착오해석 및 업무미숙 등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보여 지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임용권자인 순천시 장에게 있음을 통감하며...”라는 말을 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부하직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석 시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이보다 간단 명료한 말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너무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기에 듣는 사람에게는 감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과연 하늘과 양심에 비추 부끄럼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번 재판에서 방성용 전 시장에게 조인한 ‘희생양 작전’이 아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결백함과 소신을 허석 시장이 보여줄지 주목된다.

전남도, 균형발전박람회 준비 속도 돌산대교 케이블 교체 공기 단축

엠블럼·슬로건 확정

전남도가 9월 25일부터 3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엠블럼과 슬로건을 확정하는 등 박람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 첫 개최 이후 처음으로 대도시가 아닌 강소도시에서 개최된다.

6일 공개된 엠블럼은 자연과 사람, 도시와 지역이 어우러져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박람회를 형상화했다.

슬로건은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실현되는 균형발전’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으로 안정된 삶, 활기찬 공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혁신이 모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박람회를 표명했다.

전남도는 이날부터 전남의 품으로 온 강과 들녘을 형상화하는 등 엠블럼의 의미를 확대한 포스터도 함께 공개했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사례와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전시박람회다. 정책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정책박



람회, 지역 혁신을 직접 실현하는 지역 혁신가들의 소통의 장인 국민참여박람회로 구성된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국 지역 혁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교통 통제 따른 관광객 불편 해소

여수 돌산대교 노후 케이블 교체와 도장작업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착공 예정이었던 성능개선 공사가 한 달여 단축된다.

이로써 공사에 따른 교통통제 기간도 같이 줄어들어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돌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를 위해 8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4개월여 동안 교통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기간도 단축해 줄 것을 익산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일 익산청은 여수시 의견을 수용해 공사기간을 추석 이후인 9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한 달여 줄인다고 통보했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의 축제인 ‘제18차 여수 세계한상대회’ 기간인 10월 22일~24일에 돌산대교 통행을 임시 허용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화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도로정보전광판과 교통표지판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익산청은 1984년 준공된 돌산대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76억3,300만 원을 투입해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케이블 교체, 케이블 도장, 교량받침 교체, 케이블 장착구 보수 보강, 강교도장 등이다.

이번 통제 기간 중에는 9곳의 노후 케이블 교체와 케이블 도장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제기간 운전자들은 ‘거북선대교→엑스포 박람회장→중앙동 로터리→서교로 터미’로 우회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공사이니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며 “공사가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익산청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실종 지적장애 여중생 무사 귀가

순천 송광파출소, 신고 접수 후 신속 수색

순천 송광파출소 경찰관들이 폭염 속 지적장애 여중생 실종사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수색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시켜 화제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50분께 한 할머니로부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손녀 딸(15)이 과자를 사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를 접수 받고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하민수 소장과 조진우·조소영 경위 등 경찰관들은 곧바로 소재지 마트와 상가 일대를 탐문해 실종 여중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송남중학교 방면 도로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할머니를 112순찰차에 동승시킨 후 이동 경로와 동선을 추적, 미귀가 1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조소영 경위(왼쪽)와 조진우 경위. /송광파출소 제공

10분께 자동차 전용도로 교차로 입구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실종자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클릭! 고흥 소식



보성교육청 드론활용 학교 안전점검

보성교육청은 최근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학교 시설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학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육안검사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학교 건축물 상부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고화질의 영상으로 옥상 배수로 청소 여부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고흥향우배·동부권 배드민턴 대회 성료

고흥군은 최근 고흥광명체육관에서 500개팀 1,000여명이 참가한 ‘2019 전국고흥향우배 및 동부권 친선 배드민턴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동부취재본부=김진준 기자

이번 대회는 출향향우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배드민턴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됐으며 남자복식 14명과, 여자복식 10명이 각 급수별 우승을 차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준 기자



구례 읍내파출소 휴가철 탄력순찰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각종 도난예방을 위해 경찰이 함께하는 탄력순찰(맞춤형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출형 치안활동)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주민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